

최근 취업자수 증가에 대한 평가

2022년 8월 4일

송상윤* · 배기원**

22년 상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4.1만 명 증가하여 과거 장기추세를 상회하는 등 큰 폭의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고는 노동수급의 관점에서 취업자수 증가세를 평가한 후, 노동공급 확대가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 고용의 특성을 분석한다.

먼저 노동수급을 보면, 최근 들어 노동 공급과 수요가 동반 확대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가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는 등 노동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대부분 산업에서 구인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을 거치지 않고 취업자로 바로 전환되는 경향도 강화되어 노동수요도 견고한 모습이다. 특히, 청년층(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고령층(인구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상승)의 노동공급 확대가 취업자수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청년층 고용의 특성을 보면,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는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2년 상반기 청년층 취업자수(계절조정) 증가분 중 67.5%가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 기인하였다. 산업·직업별로 보면,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는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비대면 서비스업 상용직 사무직, 보건복지업 전문가(간호사 등), 음식숙박업 임시직에서 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역 및 돌봄 인력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대면소비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의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종사하는 생산·현장직(제조업 생산직, 건설업 현장직, 청소·경비 등), 농림어업직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 생산·현장직의 경우 노동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층에서만 취업자수가 증가해 여타 연령대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직 기피현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 공급과 수요의 동반 확대, 상용직 중심의 취업자수 증가, 대면서비스업의 점진적 회복 등으로 취업자수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경기둔화 가능성 등은 중장기적으로 취업자수 증가세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전화: 02-759-4291, e-mail: sy.song@bok.or.kr)

**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조사역(전화: 02-759-4187, e-mail: Giwon0321@bok.or.kr)

-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논고 작성에 많은 도움을 주신 강태수 고용분석팀장, 한국외국어대학교 손종철 교수,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정종우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본문에 남아있는 오류는 저자의 책임임을 밝힙니다.

I. 검토배경

최근 들어 취업자수는 감염병 확산 위기로부터의 회복·개선세를 넘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22년 상반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94.1만명 증가하였으며, 특히 22.2분기 중 취업자수(+88.0만명)는 21.2분기 중 취업자수 큰 폭 증가(+61.8만명)에 따른 기저효과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¹⁾

이러한 취업자수의 가파른 증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과거 추세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먼저, 감염병 확산 위기가 없어 15.1~19.12월의 취업자수 증가 추세가 지속된다고 가정하여도 현재의 취업자수는 동 추세를 상회하고 있다(<그림 1> 참조).²⁾ 이는 대부분 고용지표가 감염병 확산 직전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미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³⁾

<그림 1> 취업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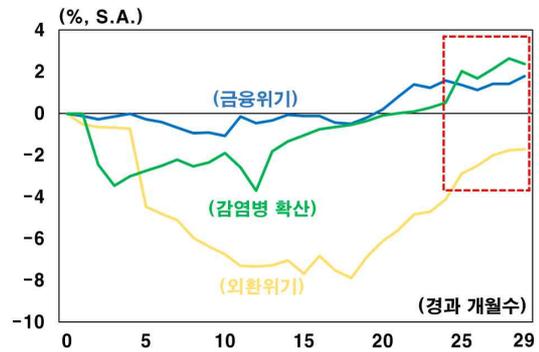
주: 1) 15.1~19.12월 취업자수 추세(HP 필터)가 22.6월까지 지속된다고 가정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다음으로,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생산과 고용 간 관계를 이용하여 예측한 취업자수 증가폭을 상회하고 있다. 13.1~22.5월 중 취업자수와 산업생산지수 간 관계를 추정 후, 추정식을 이용하여 취업자수를 예측해보면 22년 이

후 보이는 취업자수 증가세는 생산 대비 다소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⁴⁾

마지막으로, 과거 경제위기와 비교해보면 최근의 취업자수 호조세는 이례적 현상이다. 위기 발발 후 29개월이 지난 시점(감염병 확산의 경우 22.6월)을 기준으로 보면, 외환위기는 위기 발생 직전 취업자수 수준을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경우 위기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감염병 확산 위기 대비 다소 빨랐으나, 회복 이후의 취업자수 증가는 감염병 확산 위기보다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가 과거 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2> 참조).

<그림 2> 위기별 취업자수 회복세 비교¹⁾



주: 1) 시작시점은 외환위기 97.8월, 금융위기 08.7월, 감염병 확산 20.1월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이렇게 22년 들어 취업자수가 과거 대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노동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취업자수 증가세를 평가한 후, 노동 공급 확대가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15~29세)과 고령층(60세 이상) 고용의 특성을 분석한다.

1) 22.1분기 중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100.1만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21.1분기 중 취업자수의 큰 폭 감소(38.0만명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 HP필터를 이용하여 15.1~19.12월 계절조정 취업자수의 추세를 추출한 후, 동 추세가 22.6월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하였다.

3) 22.6월 미국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은 감염병 확산 직전(20.2월) 대비 각각 1.2%p 낮고, 0.1%p 높은 수준이다. 미국 민간부문 취업자수는 22.6월에서야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4)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1> '생산의 관점에서 본 취업자수 증가세 평가'를 참조하기 바란다.

II. 노동수급 측면의 취업자수 증가 원인

1. 노동공급

먼저 노동공급 측면을 살펴보면, 22년 들어 경제활동인구(이하 경활인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등 노동공급이 확대되고 있다.

경활인구(계절조정)는 감염병 확산의 영향으로 20.4월에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3.4% 감소하였으나, 21.12월에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한 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여 22.6월에는 20.1월 대비 1.5% 증가하였다(<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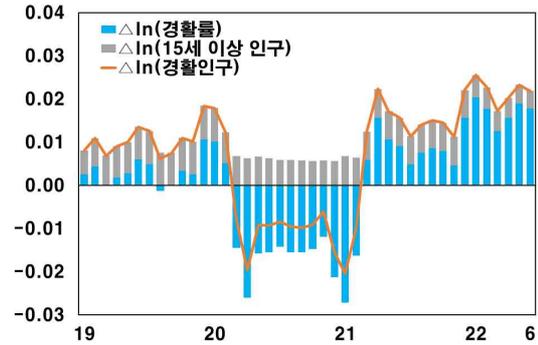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경활인구의 증가를 인구 요인과 경제활동참가율(이하 경활률) 요인으로 분해해 보면, 최근의 경활인구 증가는 인구 증가보다 경활률 상승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Delta \ln(\text{경활인구}) = \Delta \ln(\text{15세 이상 인구}) + \Delta \ln(\text{경활률})$$

감염병 확산 이전의 경활인구 증가는 인구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반면, 감염병 확산 이후의 경활인구 변화는 인구보다 경활률 변동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4> 참조). 특히, 22년 상반기 경활인구 증가에 대한 경활률 상승의 기여도는 78.8%로 21년 하반기(55.7%) 대비 큰 폭 상승하였다.

<그림 4> 경제활동인구 증감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5>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경활률을 연령별로 보면, 최근의 경활률 상승은 청년층과 고령층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참조).

청년층의 경우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경활률이 크게 상승해 경활인구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2.6월 청년층 인구는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4.7% 감소한 반면, 경활률은 1.9%p 상승하여 경활인구는 1.0% 감소에 그쳤다.

고령층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데다 경활률도 상승해 경활인구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6월 고령층 경활률은 20.1월 대비 1.5%p 상승하였으며, 경활인구는 감염병 확산 이전 대비 16.6% 증가하여 여타 연령대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핵심층(30~59세)의 22.6월 경활률은 20.1월 대비 0.2%p 상승하는 데 그쳐 여타 연령층 대비 더디게 회복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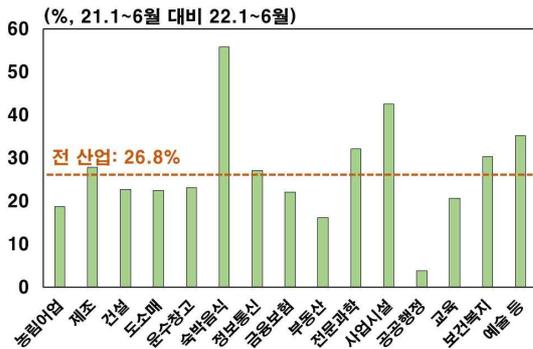
2. 노동수요

(구인인원의 증가)

노동수요 측면을 보면, 22.1~6월 구인인원(고용행정통계 기준)은 전년동기대비 26.8% 늘어 노동수요도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그림 6> 참조).⁵⁾

구인인원을 산업별로 보면, 방역정책 완화의 영향으로 대면서비스업에 속하는 숙박음식업(55.8%), 예술·스포츠·여가업(35.2%) 등에서 구인인원이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의 구인인원도 큰 폭 증가(42.5%)하였는데, 이는 대면 활동 확대에 따른 여행 관련직, 청소·방역·가사 서비스 관련직, 경비직 등의 노동수요가 증가한 데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보건복지업의 경우 간호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구인도 증가하고 있다.

<그림 6> 산업별 구인인원¹⁾ 증가율



주: 1) 해당월 신규 구인신청 인원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

(비경황 → 취업 전환 증가)

비경황인구가 취업자로 바로 전환되는 경향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노동수요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보기 위해 Ball et al. (2017) 방법론을 원용하여 경황인구에 대한 취업자수(β_1^E)와 실업자수 탄력성(β_1^U)을 산출해 보았다

$$E_t - E_t^* = \beta^E + \beta_1^E \times (P_t - P_t^*) + \epsilon_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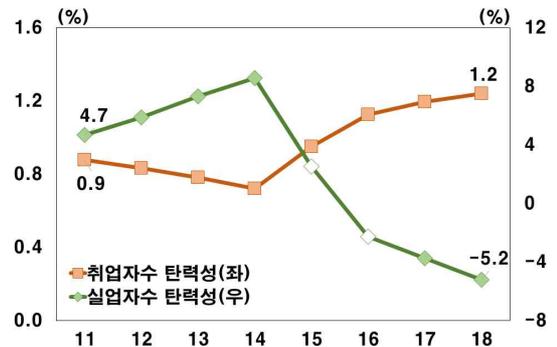
$$U_t - U_t^* = \beta^U + \beta_1^U \times (P_t - P_t^*) + \epsilon_t^U$$

여기서 E , U , P 는 각각 로그를 취한 취업자수, 실업자수, 경제활동인구수이며, E^* , U^* , P^* 는 HP필터를 이용한 추세를 나타낸다.

추정 결과, 최근 들어 취업자수 탄력성이 상승하여 비경황인구가 취업자로 바로 전환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15년에는 경황인구가 1% 증가하면 취업자수가 0.9% 증가하였으나, 18.1~22.6월에는 동 수치가 1.2%로 상승하였다(<그림 7> 참조).

실업자수 탄력성의 경우 최근 들어 음(-)으로 전환되어 경황인구의 증가에도 실업자수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비경황에서 실업으로 전환되는 인구수보다 실업에서 취업으로 전환되는 인구수가 더 많기 때문으로, 노동수요가 많아 실업자가 감소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림 7>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탄력성 추이¹⁾²⁾



주: 1) 연도는 회귀분석 시작연도를 의미하며(18년은 18.1~22.6월), 5년 단위 회귀분석을 수행
2) 빈 표식은 추정치가 10% 이내에서 미유의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5) 감염병 확산 이전인 19.1~6월과 비교하면 22.1~6월 구인인원은 54.6% 증가하였다.

6) 유사한 통계를 조사하는 직종별사업체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2.1분기 중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인원은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하였다.

3. 취업자수 증감 분해

다음으로 노동 공급과 수요가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에 미친 기여도를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산출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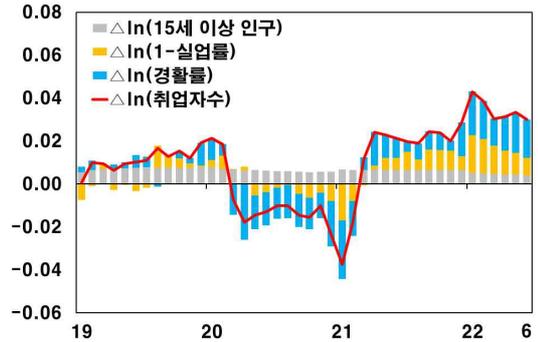
$$\Delta \ln(\text{취업자수}) = \Delta \ln(\text{15세 이상 인구}) + \Delta \ln(\text{경활률}) + \Delta \ln(\text{1-실업률})$$

여기서 (1-실업률)은 노동수요, 경활률과 15세 이상 인구는 노동공급 요인을 의미한다고 가정하였다. 실업률은 노동 공급과 수요의 영향을 모두 받으나, 최근에는 경활률 상승, 실업률 하락 현상이 함께 나타나고 있어 실업률이 노동수요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고려하였다.

분해 결과,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는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 확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7) 22년 상반기 취업자수 증감분 중 노동공급의 기여도는 약 63.4%로 높은데다, 최근 동 기여도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1분기 58.5% → 22.2분기 69.2%). 다만, 노동수요가 취업자수 증가에 미치는 절대적인 영향의 크기는 팬데믹 이전 시기 대비 크게 확대되어 노동수요의 영향도 작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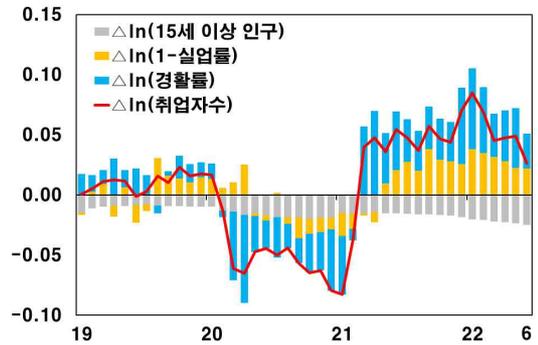
다음으로, 최근 취업자수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층과 고령층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분해해 보았다. 분해 결과, 청년층의 취업자수 증가는 경활률 상승,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는 경활률 상승과 인구요인에 주로 기인해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 확대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년층의 경우 인구 감소가 취업자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으나, 경활률 상승이 이를 상당 부분 상쇄하고 있다. 고령층의 경우 취업자수 증가의 대부분이 노동공급 확대에 의해 설명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 10> 참조).8)

<그림 8> 취업자수 증감 분해: 전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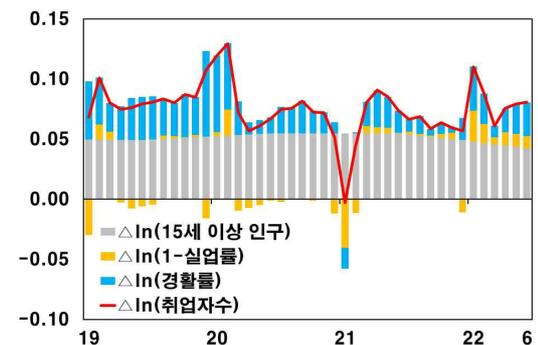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9> 취업자수 증감 분해: 청년층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0> 취업자수 증감 분해: 고령층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7) 이러한 결과는 노동 공급 및 수요 곡선 추정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참고 2> '노동 공급과 수요 분해'를 참고하기 바란다.

8) 노동수요 측면을 보면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는 노동수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청년층 취업자수 증가는 노동수요에도 상당 부분 영향을 받았다.

Ⅲ. 청년층 및 고령층 고용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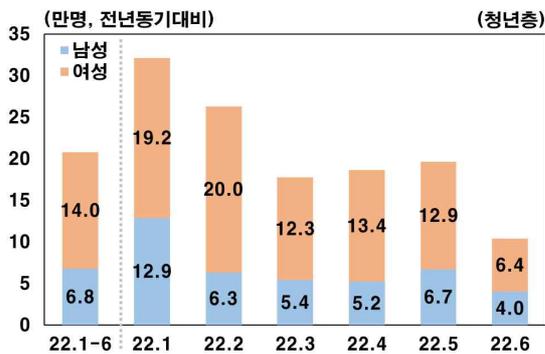
1. 청년층

(청년층 고용현황)

22년 들어 청년층 취업자수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2년 상반기 중 청년층 취업자수는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20.8만 명 증가했으며(전년동월대비 기준),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수는 감염병 확산 이전(20.1월) 수준을 1.0%(+4.1만 명) 상회하고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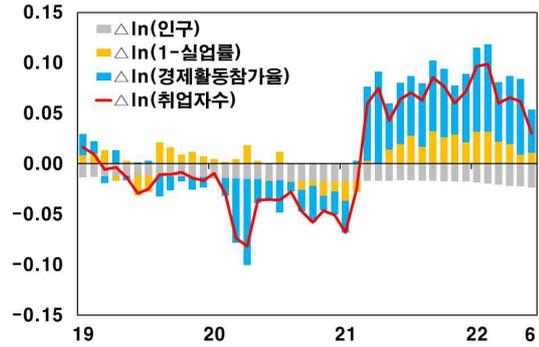
청년층 취업자수를 성별로 보면 22년 상반기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의 67.5%가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그림 11> 참조), 이는 여성의 노동공급 확대(경황률 상승)에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그림 12> 참조). 22.6월을 기준으로 보면, 경황률 상승이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 증가에 미친 영향의 크기는 실업률 하락의 영향보다 약 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업 → 취업) 전환보다 (비경황 → 취업) 전환이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11> 청년층 성별 취업자수 증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12>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 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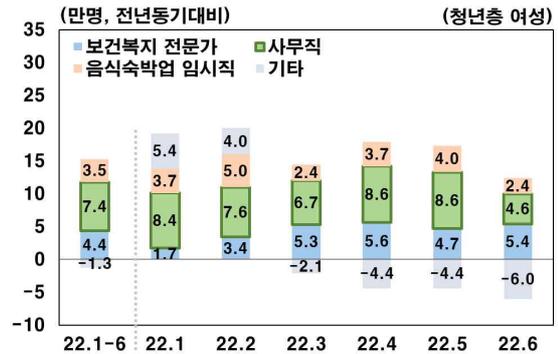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여성 고용의 특징)

청년층 여성 취업자를 산업·직업별로 세분화해보면, 청년층 여성의 취업자수 증가는 ① 사무직, ② 보건복지업 전문가¹⁰⁾, ③ 음식숙박업 임시직 증가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3> 참조).

<그림 13>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 증감 분해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① 사무직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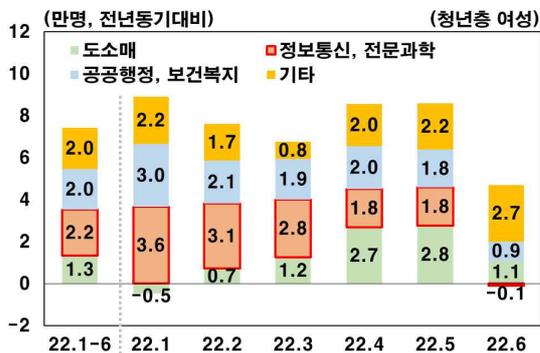
먼저 사무직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22년 상반기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 증가분 중 52.8%가 사무직 증가에 기인하였다. 사무직 중에서도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서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감염병 확산

9) 22.6월 청년층 인구수는 전년동월대비 21.6만명 감소하였다(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10) 산업이 보건복지업이면서 직업이 전문가인 취업자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포함된다.

에 따른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 산업의 경우 감염병 확산 이전부터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보였으며, 최근 비대면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취업자수 증가세가 가속화된 것으로 보인다.¹¹⁾¹²⁾ 아울러 도소매업 사무직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른 사무직 노동수요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4> 참조).¹³⁾

<그림 14> 청년층 여성 사무직 취업자수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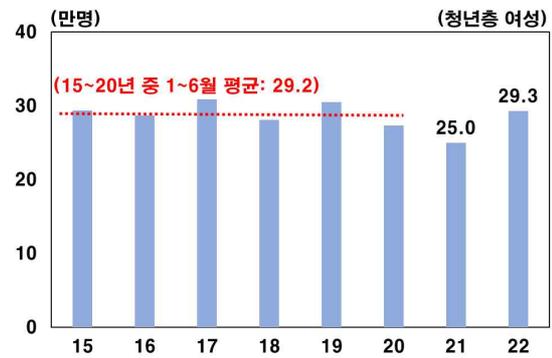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보건복지업 전문가 증가

다음으로 보건복지업 전문가를 보면, 22년 상반기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 대비)의 31.0%가 보건복지업 전문가 증가에 기인하였다. 이는 지난해 간호사 취업자수의 일시적인 감소에 따른 기저효과와 방역수요 확대(일반병원 신속항원검사 실시 등)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5~20년 1~6월 중 청년층 여성 보건복지업 전문가는 29.2만 명으로 22년과 유사하나, 21년 동 기간에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퇴직이 증가하여 25.0만 명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2년에는 이러한 현상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15> 참조).

<그림 15> 청년층 여성 보건복지업 전문가 취업자¹⁾



주: 1) 각 연도 1~6월 평균 기준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③ 음식숙박업 임시직 증가

마지막으로 음식숙박업 임시직을 보면, 22년 상반기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 대비)의 25.1%가 음식숙박업 임시직 증가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음식숙박업 임시직 여성 중 청년층 비중은 21.6월 44.4%에서 22.6월 47.9%까지 상승하였다(<그림 16> 참조).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5인 미만 영세 업체에서 근무(22.6월 기준 52.7%)하고 있고, 주당 근로시간도 짧아(22.6월 기준 평균 19.1시간) 고용의 질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6> 연령별 음식숙박업 임시직 비중(여성)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1) 정보통신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취업자수(전 연령 기준, 계절조정)는 20.1월 대비 22.6월 11.5% 증가하였다.
12) 22.6월에 동 산업에서의 청년층 여성 취업자수가 감소한 것은 기저효과 영향(21.6월 +3.2만 명)으로 추정된다.
13) 비대면 소비의 확산으로 도소매업 판매직은 22년 상반기 중 전년동기대비 8.9만 명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 관리직·전문가·사무직은 3.3만 명 증가하였다.

2. 고령층

(고령층 고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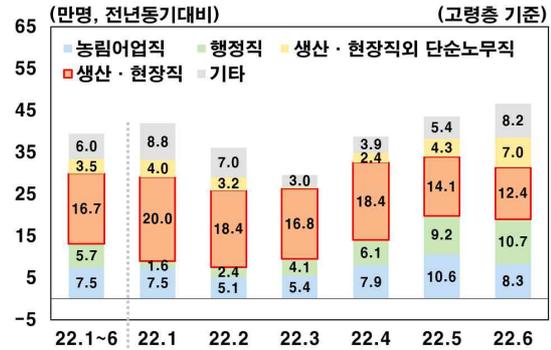
최근 취업자수 증가는 청년층 여성과 더불어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에도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22년 상반기 중 고령층 취업자수는 월평균 44.3만 명 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기준), 전 연령 취업자수 증가분(+94.1만 명)의 47.1%를 차지했다. 계절조정 기준 취업자수도 감염병 확산 이전(20.1월) 수준을 18.1%(+90.0만 명) 상회하여 여타 연령대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령층 취업자수를 성별로 보면, 22년 상반기 중 전년동월대비 남성 취업자수가 28.4만 명, 여성 취업자수가 15.9만 명 증가하여 두 성별 모두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계절조정 취업자수를 보면 청년층의 경우 여성만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한 반면, 고령층은 남성과 여성 모두 팬데믹 이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¹⁴⁾

(고령층 고용의 특징)

이러한 고령층 취업자수의 큰 폭 증가는 여타 연령층에서 기피하는 소규모 사업체(30인 미만) 생산·현장직¹⁵⁾, 농림어업직¹⁶⁾ 증가에 주로 기인하였다.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분 중 생산·현장직 및 농림어업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년 36.6%에서 22년 상반기 61.3%로 크게 상승하였다(<그림 17> 참조). 반면, 공공행정·보건복지 초단기 일자리의 증가세는 둔화되어 고령층에 대한 직접일자리 정책의 영향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7> 고령층 일자리 분해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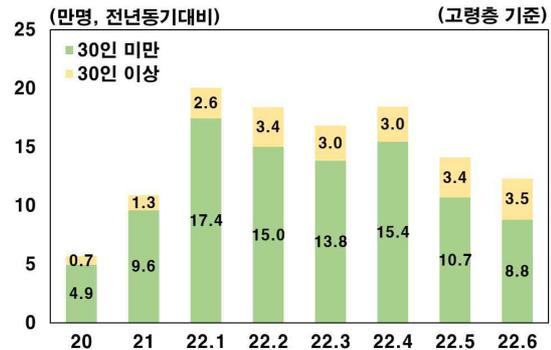


주: 1) 공공행정·보건복지 초단기 일자리 제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① 생산·현장직 증가

먼저 생산·현장직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22.1~6월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분 중 42.3%가 생산·현장직 증가에 기인하였다.¹⁷⁾ 고령층의 생산·현장직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년 5.7만 명, 21년 10.9만 명, 22.1~6월 중 16.7만 명 증가하여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그림 18> 종사자규모별 생산·현장직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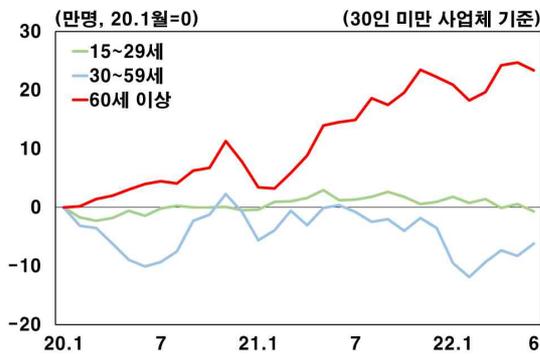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종사자규모별로 보면 고령층 생산·현장직 취업자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주로 증가하였으며(<그림 18> 참조), 이는 ① 3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업에서의 노

14) 20.1월 대비 22.6월 고령층 남성 취업자수는 58.6만 명, 여성 취업자수는 27.6만 명 상회하고 있다(계절조정 기준).
15) 생산·현장직은 산업이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업이면서, 직업이 기능원, 장치·기계, 단순노무인 취업자로 제조업 생산직, 건설업 현장직, 청소·경비 등이 포함된다.
16) 농림어업직은 산업이 농림어업이거나 직업이 농림어업 속련 종사자인 취업자를 말한다.
17) 동 수치는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분 중 공공행정·보건복지 초단기 일자리를 제외하고 계산하였다.

동수요 증가, ② 여타 연령대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직 기피현상에 상당 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3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업의 빈일자리는 20년 2.7만 명에서 22.5월 6.3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여 최근 동 부분의 노동수요가 확대되고 있다.¹⁸⁾ 아울러, 30인 미만 사업체에서의 생산·현장직 취업자수 증가는 고령층에서만 나타났는데(<그림 19> 참조), 이는 동 부분의 노동수요 증가와 여타 연령대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직 기피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체 생산·현장직 취업자수가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

<그림 19> 연령별 생산·현장직 취업자수 증감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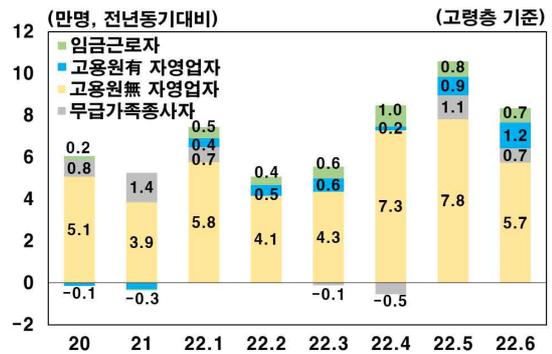
② 농림어업직의 증가

다음으로 농림어업직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22.1~6월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분 중 18.9%가 농림어업직 증가에 기인하였다. 고령층의 농림어업직은 전년동기대비 기준 20년 5.9만 명, 21년 4.9만 명, 22.1~6월 7.5만 명 증가하여 최근 들어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농림어업직 취업자수 증가분 중 상당 부분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22년 상반기 기준 78.3%)로 나타났다(<그림 20> 참조). 이러한 현상은 귀농·귀가가 증가하

고 있는 데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¹⁹⁾, 일자리를 찾지 못한 고령층이 농림어업직으로 밀려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림 20> 종사상지위별 농림어업직 취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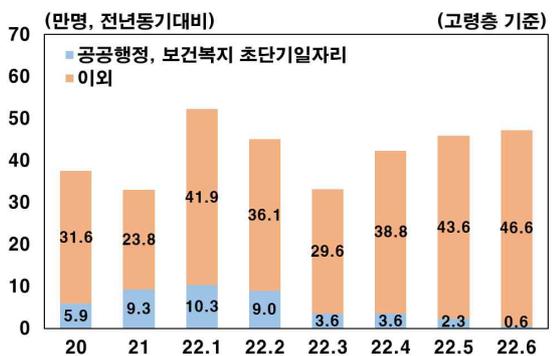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③ 일자리 정책 영향 감소

마지막으로 공공행정·보건복지 초단기 일자리를 보면,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2.1~2월 19.8%에서 22.3~6월 5.9%로 하락하였다(<그림 21> 참조). 21년과 22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유사(21년 30.1조 → 22년 31.1조, 본예산 기준)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자리 정책이 22년 고령층 취업자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1> 공공행정·보건복지 초단기 일자리¹⁾



주: 1)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18) 30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업 빈일자리수(만명): '20년 2.7 → '21년 4.3 → '22.1월 5.5 → 2월 5.8 → 3월 5.9 → 4월 5.9 → 5월 6.3

19) 통계청에 따르면, '20년 대비 '21년 귀농, 귀어 가구수는 각각 14.9%, 26.5% 증가하였다.

IV. 종합평가

최근 취업자수는 감염병 확산 위기로부터의 회복세를 크게 넘어서는 호조세를 보이면서 감염병 확산 이전 장기추세(15~19년)를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다.

노동수급을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의 구인인원이 증가하고 비경황 상태에서 취업으로 바로 전환되는 경향도 강화되는 등 노동 공급과 수요가 모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 여성과 고령층이 최근의 취업자수 호조세를 견인하고 있다. 청년층 여성의 취업자수 증가는 IT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사무직 증가, 간호사 등 보건복지업 전문가 증가, 음식숙박업 임시직 증가에 상당 부분 기인하였다. 이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 방역 및 돌봄 인력 확대,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에 따른 대면소비 증가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령층의 경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 생산·현장직, 농림어업직을 중심으로 취업자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소규모 사업체 생산·현장직 증가는 고령층에서만 나타났는데, 이는 여타 연령대의 중소기업 생산·현장직 기피현상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노동 공급과 수요의 동반 확대, 상용직(계약기간이 1년 이상) 중심의 취업자수 증가²⁰⁾, 대면서비스업의 점진적 회복 등을 볼 때 단기적으로는 취업자수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는 생산 대비 다소 가파른 데다, 일시적 대면 소비 증가에 따른 음(-)의 기저효과²¹⁾,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경기둔화 가능성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현재의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0) 22.6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는 84.1만명 증가한 가운데, 이 중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은 74.9만명, 계약기간이 있는 상용직은 15.0만명 증가하였다.

21) 22.5, 6월 음식점 및 주점업 판매액지수(불변지수)는 각각 102.2, 99.0으로 19.5, 6월(각각 99.9, 94.8) 대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참고 1>

생산의 관점에서 본 취업자수 증가세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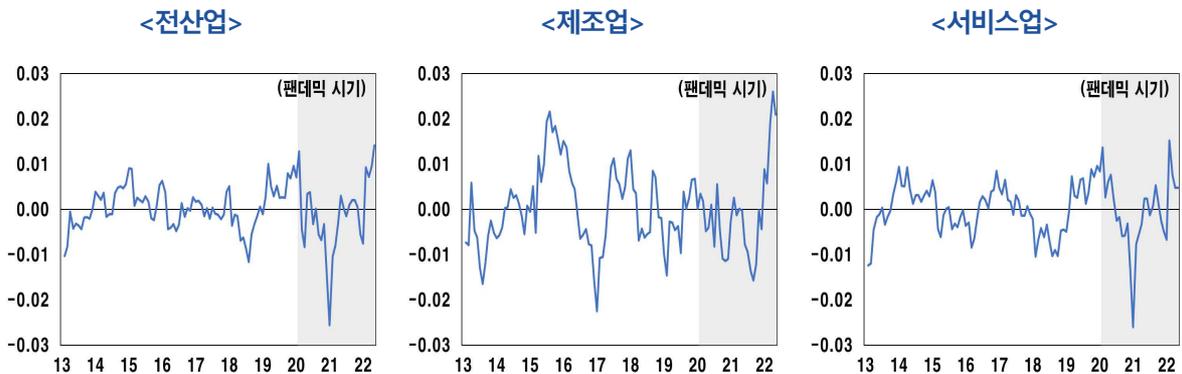
생산의 관점에서 취업자수 증가세를 평가하기 위해 13.1~22.5월 중 취업자수 순환변동치와 산업생산지수 순환변동치를 이용하여 아래의 모형을 추정한 후, 취업자수 순환변동치의 예측오차를 산출하였다.

$$y_t = \alpha + \beta_0 x_t + \beta_1 x_{t-1} + \epsilon_t$$

여기서 y_t , x_t 는 각각 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의 로그값에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이며, 시차는 AIC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오차항의 자기상관을 보정한 Newey-West 표준오차를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동차와 1차 시차항은 1% 이내에서 모두 유의하였다.

산출 결과 팬데믹 이후 예측오차의 변동성이 커진 데다, 최근에는 예측오차의 크기가 정(+)의 방향으로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제조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그림 A-1> 참조). 이는 13년 이후 생산과 고용 간 관계의 측면에서 볼 때, 최근 취업자수 증가세가 생산 대비 다소 가파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A-1> 산업별 취업자수 순환변동치 예측오차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저자 추정

<참고 2>

노동 공급과 수요 분해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에 노동 공급과 수요가 미친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베이지안 VAR 모형을 이용하여 노동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추정한 후, 노동 공급 충격과 수요 충격이 취업자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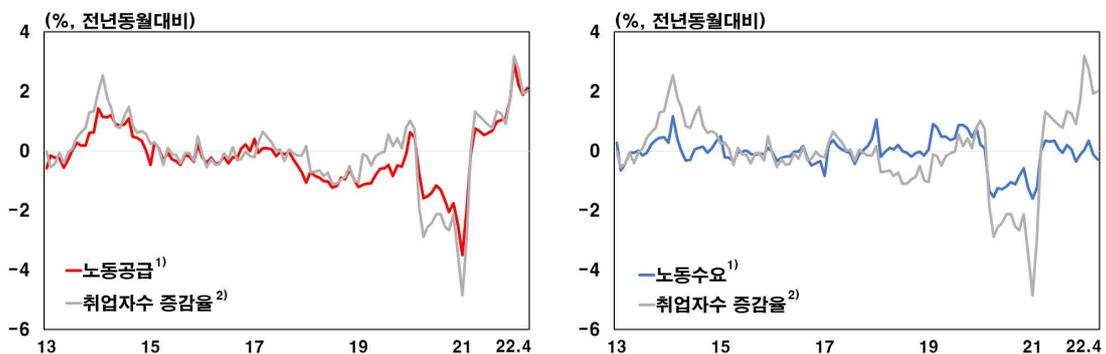
노동 공급 및 수요 곡선의 추정은 Baumeister and Hamilton (2015), Brinca et al. (2021), 박창현·유민정 (2020) 등의 방법론을 참고하여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임금에 대한 노동수요 탄력성은 음(-)의 값, 노동공급 탄력성은 양(+)의 값을 가지도록 부호제약을 부여하였으며, 두 곡선을 각각 추정한 후 역사적 분해(historical decomposition)를 수행하였다.

$$\Delta \ln EMP_t = \alpha + \sum_{i=1}^l \beta_i \times \Delta \ln Wage_{t-i} + \sum_{i=1}^l \gamma_i \times \Delta \ln EMP_{t-i} + \epsilon_t$$

(여기서 $\Delta \ln EMP_t$ 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율, β 는 노동 공급·수요 탄력성, $\Delta \ln Wage_t$ 는 전년동월대비 실질임금(월기준, 특별임금제외) 증가율을 의미함. 시차(l)는 4를 적용)

분석 결과, 최근의 취업자수 증가는 노동수요보다 노동공급에 주로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수요의 기여도는 분석 기간 중 평균 수준에 그쳐 취업자수 증감율의 편차(평균 대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감염병 확산 시기에 취업자수 증감율이 큰 폭 하락한 것은 노동 공급 감소와 수요 감소가 함께 영향을 미친 가운데, 노동수요보다는 노동공급 감소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A-3> 노동공급 및 수요 충격이 취업자수에 미친 영향: 역사적 분해
<노동공급 충격> <노동수요 충격>



주: 1) 전년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감율의 평균 대비 편차($X_t - \bar{X}$)에 대한 노동공급 및 수요에 대한 기여도
2) 취업자수 증감율은 분석 기간(12.4~22.4월) 중 평균 대비 편차를 의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저자 추정

참고문헌

- 박창현, 유민정(2020), "코로나19의 노동시장 수요·공급 충격 측정 및 평가", BOK이슈노트 2020-11호
- Baumeister, C., & Hamilton, J. D. (2015), "Sign Restrictions,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s, and Useful Prior Information", *Econometrica*, 83(5), 1963-1999
- Brinca, Pedro, Joao B. Duarte, & Miguel Faria-e-Castro. (2021), "Measuring Sectoral Supply and Demand Shocks during COVID-19", *European Economic Review*, 139
- Ball, L., Leigh, D., & Loungani, P. (2017), "Okun's law: Fit at 50?", *Journal of Money, Credit and Banking*, 49(7), 1413-1441

Copyright © BANK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 본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BOK 이슈노트 No. 2022-30에서 인용"하였다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내용에 대하여 질문 또는 의견이 있는 분은 커뮤니케이션국 커뮤니케이션기획팀(02-759-4759)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한국은행 홈페이지(<http://www.bok.or.kr>)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